

〈主 題〉

# LG텔레콤의 PCS사업 추진

정 장 호  
(LG텔레콤 대표이사)

□차 례□

- |                    |                        |
|--------------------|------------------------|
| I. 회사소개            | V. 운용보전 계획             |
| II. 인재들의 구성        | VI. LG텔레콤의 사업 전망       |
| III. 동업계의 중소기업과 협조 | VII. 차세대 기술개발과 해외진출 계획 |
| IV. 서비스            |                        |

## I. 회사소개

LG텔레콤은 지난 6월 LG정보통신을 대주주로 한 100여개사가 설립하여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LG텔레콤은 가치경영과 인재경영을 기반으로 품질경영, 고객경영, 환경경영을 실천하여 고객들의 사랑과 사업의 번영을 추구하고 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세계적 종합통신사업자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

고객의 가치창조, 인간존중경영을 이념으로 하는 LG텔레콤은 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들의 회사를 장래상으로 정하였다. 고객의 사랑과 사업의 번영을 목표로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이 LG텔레콤이 추구하는 가치경영이다.

LG텔레콤은 지난 7월 구로전화국과 인접한 독산동에 중앙교한국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11월에는 고객과 보다 밀착된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사를 강남 트윈타워로 이전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돌입했다.

LG텔레콤은 조직의 구성에 있어 경영주체인 사업본부, 기술본부, 조달본부, 지원본부의 4본부 및 경영전문화를 위한 봉사원, 기술원, 전산원, 교육원의 4원을 조직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4본부 4원 조

직체제는 사업초기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국내외의 사업확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가 가능하고 전문화를 촉진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

## II. 인재들의 구성

LG텔레콤의 경영책임을 맡은 인재들은 먼저 기술특성을 고려하여 대주주인 LG정보통신에서 영입한 많은 기술인재들과 외부에서 특별한 지식을 겸비한 인재들, 그리고 신입사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LG텔레콤에는 CDMA무선망 기술의 지능망, 교환, 전송 등 통신장비와 망설계, 망구축, 망운용보전, 해외통신운용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인재들이 약 250여 명이 있다. LG그룹은 장기간 통신분야에서 기술개발과 망운용 기술을 풍부하게 쌓은 우수한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CDMA기술의 상용화를 세계에서 첫번째로 성공시킨 인재들이 많아서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

젊은이의 정열과 꿈을 가지고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는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사업준비에 전문가로 양성하고 신규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양성함으로써 사업성장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은 이론교육과 시험망을 활용한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필요한 기술을 단시일내에 습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운용기술의 조기 자립화, 신규서비스 조기 상용화, 경쟁우위 확보, 차세대 기술기반 구축을 위하여 기술 교육은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것이 곧 LG텔레콤이 추구하는 전원인재 경영의 구현이다. 기업은 인재에 의해 경영되고 인재와 더불어 성장한다는 것이 전원인재경영이 담고 있는 참뜻이며, 이는 곧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육성하자는 것이다.

### III. 동업계 및 중소기업과 협조

LG텔레콤은 중소기업과 함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와 해외동반진출(세계화)을 통하여 역할 분담과 공동발전(전문화)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LG텔레콤은 무선망 설계도구, 통합 망관리시스템, 이동국 및 기지국안테나, CDMA 단말기 등 보유 기술을 적극 양여하며, 양여된 기술이 적절히 활용되도록 기술지도와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LG텔레콤과 중소기업의 협조는 서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향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동업계와는 사업초기의 로밍을 통한 망의 구성, 기술과 요금의 표준화 등에 협조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정보통신 선진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 IV. 서비스

LG텔레콤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설비투자의 경제성이 극대화되는 망구축을 위하여 망설계도구에 의한 정밀한 분석과 구성주주의 국내의 망설계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망 품질목표를 설정하였다. LG텔레콤의 개인휴대통신망은 '99년까지 전국 인구대비 99%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시스템의 대응량화로 약 40%의 여유용량을 설정·설치할 계획이다.

LG텔레콤의 PCS 구성은 크게 교환기, 기지국장비, 단말기로 구성되어 유선가입자와의 통화는 물론 데이터 처리장치를 통해 인터넷이나 PC통신과 연결이 가능하고 운용유지보수장치, 과금장치 등의 설치로 전국망 관리 및 고객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 V. 운용보전 계획

LG그룹은 '96년 1월 세계 최초로 상용개통한 CDMA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50년대부터 통신사업에 참여, 이 분야에서 기술개발 및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선두자리를 지켜왔다. 또한 이미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베트남, 러시아, 루마니아 등에 교환기 135만회선을 수출한 바 있다.

해외에 장비를 수출함에 있어서는 장비뿐만 아니라 운용기술까지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에서는 5개 지역에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통신사업자의 운용지원을 하고 있다.

LG텔레콤은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개인휴대통신 운용보전 기술역량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LG텔레콤은 지역별로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기술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해당지역에 연고를 가진 중견 및 중소기업중 도덕적으로 우수한 회망업체에게 기술을 전수하여 확산시킬 계획이다.

### VI. LG텔레콤의 사업 전망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시장규모는 보급을 기준으로 98년의 약 13%에서 2002년에는 이 기간 동안 약 2배 이상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통신장비가격 및 이용료의 지속적인 하락, 정보사회의 진전 등으로 2000년대에는 모든 사람이 개인번호와 휴대용 단말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개인휴대통신이 향후 무선통신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현재의 셀룰러 이동전화는 대체 통신수단과의 경쟁과정에서 궁극적으로 개인휴대통신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02년까지 이동전화와 개인휴대통신의 보급률을 29%로 예상하고 있는 LG텔레콤은 고품질서비스, 저렴한 요금체제, 선택요금제 실시, 조속한 서비스망 구축, 다양한 부가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2000년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전체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할 것이다.

LG텔레콤은 현재 이동전화시장의 수요 적체 및 통화불량지역의 해소 등 양적·질적 육구를 충족시키고, 미래의 다양한 고객 육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휴대통신이 갖는 공익성과 사회성을 실현하기 위해 '98년 사업개시 후 2년내에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 Ⅷ. 차세대 기술개발과 해외진출 계획

LG텔레콤은 기술발전 추세와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변화에 따라 2001년부터 무선영상전화서비스와 다양한 차세대지능망서비스를 제공하고, 2003년부터 고품질 동영상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장기서비스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선 멀티미디어 및 지능망 등 차세대 기술분야의 기술선도가 중요하므로 LG텔레콤은 2002년까지 광대역 CDMA기술과 차세대 지능망 및 플립스(FPLMTS)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그 후에도 투자를 계속하여 차세대기술을 선점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플립스 기술개발은 국가간 기술패권경쟁양상을 보이는 만큼, 연구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가적 기술역량을 결집하고, 기존의 정부주도에서 통신사업자주도로 추진주체를 바꾸며, 각자의 강점에 맞는 역할분담하에 국가차원의 공동연구개발체계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LG텔레콤은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 놓았다.

첫째, LG그룹이 이미 확보한 현지기반을 활용, 사업초기부터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5개 전략거점을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입지를 확고히 한 후 단계적으로 지역을 확산해 나가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전략적 제휴의 추진이다. CDMA기술의 성공적 상용화는 해외의 많은 기업들에게 LG를 훌륭한 사업 파트너로 고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합작 또는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의 계의를 해오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동등한 수준의 역량을 가진 동종 경쟁기업간에도 많은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쟁상대에서는 경쟁자간에도 보다 많은 협력의 의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LG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술력을 토대로 현지기업은 물론, 세계적인 우량사업자들과 여러 분야에서의 대등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세계화의 한 전략으로 추진할 것이다.

셋째, 동반 진출 전략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 장비업체,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진출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내에서의 경쟁력을 그대로 이전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적인 장비공급, 협력중소기업들의 운용보전, 부품공급 등 현지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이들과의 공동진출은 많은 이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미국의 넥스트웨이브사와 로밍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LG텔레콤은 향후 해외진출지역에 설립될 운용회사를 중심으로 국제로밍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기존사업자와 협력하여 당사 가입자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범세계적인 로밍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LG텔레콤은 단일번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향후 2000년부터 단일번호서비스를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이 고유번호를 갖는 개인번호서비스로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LG텔레콤은 NextWave와 같은 국제적인 동반자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98년까지 기반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플립스 권고안이 구체화되면 즉각 상용화에 착수하여 2002년까지 개발을 완료해 차세대 기술표준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정 장 호

- 고려대 및 동대학원(경영학)
- 서울대 및 하버드대(최고경영자 과정)
- 1963년 : 학군단(ROTC) 1기
- 1968년 : LG입사
- 1978년 : 금성통신(주)이사
- 1980년 : LG상사 상무이사
- 1982년 : LG그룹 회장실 전무이사
- 1984년 : LG전자(주) 전무 및 부사장(해외사업)
- 1989년 : LG상사(주) 부사장
- 1990년 : (현)LG정보통신(주) 대표이사 사장
- 1992년 : (현)한국전파 진흥협회 회장
- 1993년 :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회장
- 1994년 : (현)제2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1995년 : (현)한국전자공업진흥회 이사  
(현)한국통신학회 부회장  
(현)사단법인 세계군악연구원 이사장
- 1996년 7월 : (현)LG텔레콤 대표이사 사장